

2021. 8. 26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1년 8월 2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·SEOUL·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

주차계획과장

김형규

2133-2350

주차계획팀장

최광운

2133-2352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※행사직후제공

담당자

이종운

2133-2356

서울사티맵 공민영 주차장 빈자리 실시간 정보 서비스 확대

- ‘서울주차정보’ 앱 민영주차장 2배 확대…공·민영주차장 총623곳 실시간 정보
- ‘티맵’도 서울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신규 제공… 실시간 잔여 주차대수 확인 가능
- 주차장 찾는 배회시간 단축. 주차 편의성 높여 주차장 활용 ↑ 불법주차 방지도

- 서울시가 주차장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어느 주차장에 몇 자리가 비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‘서울주차정보’ 앱의 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. ‘티맵’에도 서울시내 공영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.
- ‘서울주차정보’ 앱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울시내 공영·민영 주차장의 위치·요금·운영시간 등 주차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. 2014년 2월 출시된 이래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- 현재 서울시내 공·민영 주차장 총 2,787개소에 대한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 이중 실시간으로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공·민영 주차장은 503개소(공영 350개소, 공공부설 44개소, 민영 109개소)다.

- 이용자들은 ‘서울주차정보’와 ‘티맵’ 2개의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·민영 주차장의 실시간 잔여 주차대수, 요금,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- 서울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입자 수를 보유한 주차·네비게이션 전문기업 티맵모빌리티(주)와 업무협약(MOU)을 26일(목) 체결하고 공영주차장 위주로 제공했던 실시간 주차정보를 민영 주차장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.
- 티맵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 ‘서울주차정보’ 앱에 서비스 중인 민영 주차장 109개소가 229개소로 2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. 이렇게 되면 앱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·민영 주차장은 503개소→총 623개소로 확대된다.
- ‘티맵’ 앱을 통해서도 서울시 공영 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. 운전자들에겐 인기가 높지만 기존 내비게이션에는 없었던 서울시 공영주차장(350개소) 정보를 제공해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를 확인할 수 있다.
- 업무협약에 따라 ‘서울주차정보’ 앱과 ‘티맵(T Map)’은 각자가 보유한 주차정보를 동시에 교환·공유한다.
- 서울시는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의 기본 정보와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 등을 티맵모빌리티에 제공한다. 티맵

모빌리티도 시스템에 보유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한다.

○ 티맵모빌리티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 시스템을 24시간 유지 관리한다.

□ 시는 티맵모빌리티와의 협무협약을 통해 신뢰도 높은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주차장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시간을 단축해 주차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불법주차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.

□ 서울시는 티맵모빌리티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연말까지 120개 민영 주차장 정보를 추가,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. 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모니터링 작업도 주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.

○ 앞서 서울시는 (주)카카오('17.1), 파킹클라우드(주)('17.7)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제휴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.

□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의 공신력과 민간의 영업·기술력을 결합해 본격적인 스마트 주차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.”며 “실시간 정보 제공 주차장의 지속적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※ 행사직후 업무협약식 사진 제공 예정